

수능 성적 분석

언어 1·2등급, 한 두 문제로 희비 동점자 처리 기준 꼼꼼히 살펴야

■ 정시 지원 전략

올해 대입정시 전형에서는 모집 인원이 대폭 줄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돼 치밀한 입시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 전형에서 본인의 비교우위를 따지고 각 대학의 동점자 처리 기준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입시전문가들은 “중상위권 학생의 경우 가군과 나군 대학 중에서 하나의 합격 위주로 선택하고, 나머지 군의 대학에 소신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최상위권 탐구영역 변수=올해 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어려워지만 언·수·외 모두 만점을 받은 학생이 크게 늘어 최상위권의 변별력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이번 수능에서 난이도 편차가 유독 컸던 탓에 탐구영역이 의외의 복병으로 부각됐다. 인문계열은 상위권 대학이 언·수·외의 표준점수를 활용해 선발하고 반영비율도 비슷하기 때문에 탐구영역 환산점수와 영역별 반영비율에 따른 유·불리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계열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에서 과학탐구를 30% 반영하는 등 탐구영역의 반영비율이 상당히 높다.

상위권 자연계열 수험생은 수리와 더불어 탐구영역 고득점 여부가 당락 좌우할 것으로 보이므로 지원대학의 영역별 반영비율을 잘 살펴 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

등급	구분	언어	수리 '가'형	수리 '나'형	외국어(영어)			
1	125	4.84	132	4.85	136	4.94	134	4.16
2	122	7.15	124	7.63	127	7.65	126	8.08
3	117	13.00	117	10.74	118	10.74	117	11.14
4	109	16.70	106	17.93	105	17.56	106	17.92
5	99	18.70	96	19.95	90	20.16	94	20.44
6	86	17.36	84	16.32	81	18.56	83	15.38
7	72	11.75	71	11.48	76	10.75	74	12.14
8	57	6.56	63	7.02	72	6.52	66	7.25
9	57미만	3.95	63미만	3.86	72미만	3.15	66미만	3.50

■ 수능 100% 전형, 우선선발 실시 대학

수능 100% 전형	우선선발
가천대(가/나/다), 가톨릭대 (나/다), 강원대 (나), 건국대(가/나), 경희대(가/다), 단국대(나), 동국대(가), 동덕여대(나), 부경대(가), 부산대(나), 서경대(다), 서울과기(대/나/다), 서울시립대(다), 서울여대(다), 성신여대(가/나), 숙명여대(나), 숭실대(가), 아주대(나/다), 인하대(가), 홍익대(가), 충북대(나), 한국외대(가), 한국항공대(다), 한양대(나), 홍익대(나/다)	가톨릭대(가 50%), 건국대(다 50%), 경희대(나 70%), 고려대(가 70%), 동국대(나 50%), 서경대(나 70%), 서울과기(대 50%), 서울시립대(나 70%), 성균관대(나 50%/가-인문 70%/가-자연 50%), 숙명여대(가 50%), 아주대(가 50%), 연세대(가 70%), 이화여대(가 70%), 인하대(나 30%), 한국외대(나 70%), 한양대(가 70%)

* 11월 22일 기준, 가장 많은 모집단위의 전형방법 기준. (자료: 진학사)

◇중상위권 지원 경쟁률 고려해야

=수능 개편에 따른 재수 기피 현상으로 올해는 중상위권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 소재 대학은 가군과 나군에 몰려 있다. 가군과 나군 대학 중에서 하나의 합격 위주로 선택하고, 나머지 군의 대학에 소신 지원하는 것이 좋다.

인문계 중상위권은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성적대다. 0.1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는 만큼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 반영 여부, 영역별 반영비율, 영역별 가산점 적용,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 모집단위별 최종 경쟁률 등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자연계는 수리영역 성적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지원하려는 대학의 수리영역 반영 비율, 수리 가형 가산점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중상위권 수험생은 대체로 가군 또는 나군에서 상위권 대학의 비인기학과나 지방 공립대 상위권 학과에 상당 지원을 하고 나머지 두 개 군에서 소신·안전지원하는 경향을 보인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2013학년도 수능 표준점수 인원분포

언어					외국어				
표준점수	남자	여자	계	누적인원	표준점수	남자	여자	계	누적인원
127	7,898	6,727	14,625	14,625					
126	287	183	470	15,095					
125	8,044	6,915	14,959	30,054					
124	6,912	6,638	13,550	43,604					
123	6,187	5,344	11,531	55,135					
122	9,704	9,575	19,279	74,414					
121	6,594	6,307	12,901	87,315					
120	9,497	9,670	19,167	106,482					
119	7,680	7,510	15,190	121,672					
118	8,741	8,733	17,474	139,146					
117	7,858	8,040	15,898	155,044					
116	7,969	8,055	16,024	171,068					
115	7,973	7,898	15,871	186,939					
114	7,445	7,573	15,018	201,957					
111	7,031	7,071	14,102	230,950					
110	7,093	7,260	14,353	245,303					
109	6,633	6,698	13,331	258,634					
108	6,775	6,633	13,408	272,042					
107	6,153	6,229	12,382	284,424					
106	6,155	6,216	12,371	296,795					
105	6,006	5,807	11,813	308,608					
104	6,061	5,741	11,802	320,410					
103	5,892	5,548	11,440	331,850					
102	5,664	5,466	11,120	342,970					
101	5,662	5,322	10,984	353,954					
100	5,506	5,118	10,624	364,578					
99	5,224	4,882	10,106	374,684					
98	5,211	4,730	9,941	384,625					
97	5,104	4,587	9,691	394,316					
96	4,883	4,240	9,123	403,439					
95	4,698	4,387	9,085	412,524					
94	4,808	4,136	8,944	421,468					
93	4,683	4,008	8,691	430,159					
92	4,417	3,797	8,214	438,373					

수리					수리나				
표준점수	남자	여자	계	누적인원	표준점수	남자	여자	계	누적인원
139	936	178	1,114	1,114					
137	7	1	8	1,122					
136	191	36	227	1,349					
135	1,705	349	2,054	3,403					
134	3	0	3	3,406					
133	53	10	63	3,469					
132	2,899	693	3,592	7,061					
131	15	1	16	7,077					
130	122	21	143	7,220					
129	879	235	1,114	8,334					
128	2,930	852	3,782	12,116					
127	31	6	37	12,153					
126	273	68	341	12,494					
125	1,353	423	1,776	14,270					
124	3,154	1,050	4,204	18,474					
123	460	125	585	19,059					
122	1,938	619	2,557	21,616					
121	3,039	1,110	4,149	25,765					
120	146	52	198	25,963					
119	797	244	1,041	27,004					
118	2,350	851	3,201	30,205					
117	2,799	1,118	3,917	34,122					
116	1,427	500	1,927	36,049					
115	2,699	1,154	3,853	39,902					
114	2,265	937	3,202	43,104					
113	544	165	709	43,813					
112	1,641	655	2,296	46,109					
111	2,622	1,263	3,885	49,994					
110	1,754	789	2,543	52,537					
109	854	333	1,187	53,724					
108	4,444	2,071	6,515	60,239					
107	1,252	599	1,851	62,090					
106	1,209	566	1,775	63,865					
105	2,174	1,057	3,231	67,096					



대광역시 '한빛축전' 개막 27일 광주시 남구 대광역시(교장 이창호)에서 열린 '제24회 한빛축전'에서 학생들이 개막을 알리는 풍선을 하늘로 날리고 있다. 행사는 동아리 발표회 및 각종 공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해돋이 07시 20분
해질녘 17시 21분

달출몰 17시 09분
달몰입 06시 46분

오늘 날씨

추위 주춤

낮까지 포근했다가 오후에 다시 추워지겠다.

광주	구름많음	4/13°C
목포	구름많음	5/12°C
여수	구름많음	5/12°C
나주	구름많음	2/13°C
완주	구름많음	5/14°C
구례	구름많음	1/13°C
강진	구름많음	1/13°C
해남	구름많음	2/14°C
장흥	구름많음	1/14°C
순천	구름많음	1/13°C
영광	구름많음	3/12°C
진도	구름많음	5/13°C
전주	구름많음	2/13°C
군산	구름많음	3/11°C
남원	구름많음	0/13°C
홍산도	구름많음	9/13°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감기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3.0m	보통	낮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보통	낮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보통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3.0m	목포	01:31	06:53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2.0~3.0m	목포	14:15	19:33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여수	08:53	02:21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5~2.5m	여수	20:52	14:55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9(목)	30(금)	12/1(토)	2(일)	3(월)	4(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2/8	0/8	0/9	1/9	4/10	3/7

“내년 수능 A형 쉽게, B형 현수준”

성태제 교육과정평가원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태제 원장은 27일 “2014학년도 수능은 A형은 쉽게 출제하고 B형은 지금의 절대 난이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원장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2013학년도 수능시험 채점 결과를 발표한 뒤 내년 수능 출제 방향에 대해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방향의 지금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영역별 만점자 1% 정책이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학생들이 A·B형을 선택할지도 자료가 나오지 않아 수치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채점 결과에 대해서는 “작년 수능에 비해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1% 분포에 집중됐다”며 “성적 분포에 따라 문항 난이도 비율을 배분해서 출제하고 있으며 최대한 노력한 결과

(목표치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김경성 수능채점위원장(서울교대 교수)도 “전 영역·과목에 걸쳐 등급별 분포가 대부분 적정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언어영역 만점자가 2.3%에 달한 것에 대해서는 “사교육 기관이 없는 지방 학생들도 EBS 교재 연계로 인해 서울학생과 성적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다”며 “출제 실패라고 단정 짓기 어렵고 오히려 학생들의 언어 학습능력이 능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탐구영역에서 과목별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 하나는 지적에는 “매년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달라져 모집단 상점이 어려워 난이도를 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조이투어 JOY TOUR CO.,LTD

대표전화: (062) 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번지 FAX (062)234-3141

무안에서 떠나는 태국여행 (12/27~2/25 총16회)

방콕/파타야 3박5일 ₩849,000~

방콕/파타야 3박5일 ₩1,299,000~

방콕/파타야 3박5일 ₩899,000~

겨울방학때 떠나는 무안-마카오 전세기

12/29/2/2 (매주 수, 토 출발!! 총 10회!!)

마카오/홍콩 2박4일 ₩999,000~

마카오/홍콩/심천 2박4일 ₩1,049,000~

마카오/홍콩(해양공원) 3박5일 ₩1,049,000~

마카오/홍콩/심천 3박5일 ₩1,099,000~

마카오/주해 골프 36H+관광 2박4일 ₩1,399,000~

마카오/주해 골프 54H+관광 3박5일 ₩1,649,000~

무안에서 떠나는 베트남 북부 전세기

12/31 일 딱, 하루!!!! ALL 포함!!!

무안-베트남 북부 6일 ₩1,276,000

중국

무안-상해/소주/항주 5일 ₩499,000~

무안-상해/장가계/소주 5일 ₩1,049,000~

무안-북경 4일 ₩499,000~

무안-북경 5일 ₩569,000~

겨울에 떠나는 중국 북경 트레킹!!

무안-북경 트레킹 4일 ₩749,000~

무안-북경 트레킹 5일 ₩799,000~

유럽&남태평양

서유럽 4개국 8일 알프스설경과 베르사유 ₩2,190,000~

서유럽 6국 12일 백조의성과 로렌티카도 ₩3,690,000~

동유럽 5국 9일 다뉴브유람과 비엔나왈츠 ₩2,590,000~

동유럽 7국 12일 눈부신 스위스와 할슈타트 ₩2,290,000~

시디니/포트스테판+센트럴코스트 6일 ₩1,690,000~

국내 여행 제주도 여행 3일!!!

광주-제주도 ₩259,000~

11월 1일 광주 → 목포항 셔틀버스 운행 개시

광주-제주도 2박3일(씨스타크루즈호 왕복/일박호텔 5인실기준) ₩159,000~

씨스타크루즈호 목포-제주 편도 <광주출발 목포항 도착 셔틀버스포함> ₩30,000

국내 섬여행

울릉도 2박3일 ₩310,000~ 1박2일 ₩279,000~

홍도, 흑산도 1박2일 ₩189,00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요시, 광고사할 철저히 준수합니다.

• 2억 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사별 가입업체

• 고품질 항공 및 선박, 전차/전차

• 공동조각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사별 가입(해외상품, 1억 원, 국내상품 5천 원), 관광진흥회가입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박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성황에 따라 다름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